

# 2020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 입학처 -



# - 목 차 -

<b>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b> .....	1
1.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목적 .....	1
2. 수원대학교 입학전형 .....	1
2.1 입학전형 현황 .....	1
2.2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	2
2.3 입학전형별 반영비율 .....	2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추진내용 .....	4
3.1 선행학습 영향평가 추진일정 .....	4
3.2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 .....	5
3.3 선행학습 영향평가 평가위원 구성 .....	5
3.4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	5
<b>II.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b> .....	6
1. 적성고사 .....	6
1.1 국어영역 .....	8
1.1.1 출제방향 .....	8
1.1.2 출제유형(경향) .....	9
1.1.3 문항별 분석 .....	10
1.2 수학영역 .....	14
1.2.1 출제방향 .....	14
1.2.2 출제유형(경향) .....	14
1.2.3 문항별 분석 .....	15
2. 면접고사 .....	19
2.1 출제방향 및 유형 .....	19
2.2 문항별 분석 .....	20
<b>III.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종합논의</b> .....	21
1. 적성고사 .....	21
1.1 국어영역 .....	21
1.2 수학영역 .....	22
2. 면접고사 .....	23
3. 대입전형 반영계획 및 개선방향 .....	23
[별첨 1] 2020 적성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지 .....	24
[별첨 2]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	28

#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목적

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은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되었다. 이 법의 시행 목적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이들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에 대한 유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는 입학전형이 공교육의 정상화 저해, 사교육비 증가 등 학교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예측하여 사교육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0학년도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본교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중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은 수시모집의 학생부 100%전형을 제외한 학생부위주(교과) 전형과 재외국민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이다.

## 2. 수원대학교 입학전형

### 2.1 입학전형 현황

2020학년도 본교의 입학전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된다. 정시모집에서는 “나”군과 “다”군으로 분할모집하며, ‘다’군은 음악대학과 영화영상, ‘나’군은 음악대학과 영화영상을 제외한 전체 모집단위가 해당된다. 수시모집에서 1,561(정원외 포함)명 그리고 정시모집에서 799명을 모집하였다.

수시모집 선발인원 중 정원내 모집은 1,399명이고 정원외 모집은 162명이었다. 정원내 입학전형에는 학생부위주(교과)와 실기위주가 있으며, 정원외 입학전형에는 학생부위주(교과)와 면접전형이 있다. 실기위주 전형은 체육(스포츠과학부) 실기우수자, 미술(한국화, 서양화, 조소,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실기우수자, 음악(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국악) 실기우수자, 영화영상 실기우수자, 연극 실기우수자, 무용 실기우수자,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실기우수자, 농어촌(연극)전형(정원외)를 포함한다<표1>.

**<표1>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유형**

전 형 유 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유무
수시 모집	정원내 (1,399명)	학생부위주(교과)	적성고사	일반(적성)	○
			학생부	학생부100%	X
			면접고사	미래핵심인재	○
			적성고사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배려대상자	○
		실기위주	실기고사	실기우수자	X
	정원외 (162명)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	농어촌학생	X
				특성화고출신자	X
		실기위주	실기고사	농어촌학생(연극)	X
		면접	면접고사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

## 2.2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표1>에서와 같이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은 수시모집만 해당한다. 이 중에서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100%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과 실기우수자전형(체육, 미술, 음악, 영화영상, 연극, 무용,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농어촌(연극))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20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중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은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일반전형(적성)(550명), 국가보훈대상자(16명), 사회배려대상자(30명) 전형과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미래핵심인재전형(면접)(305명), 재외국민(43명), 북한이탈주민전형이다.

## 2.3 입학전형별 반영비율

수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일반전형(적성),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60%와 본교에서 실시하는 적성고사 40%를 반영한다<표 2>.

면접전형 중 미래핵심인재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서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학생부 60%와 면접고사 40%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한다. 면접전형 중 재외국민전형과 북한이탈주민전형은 면접 100%를 적용한다.

실기위주 전형 중 미술·음악 실기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20%, 실기 80%의 비율로 반영하며, 체육·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실기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40%, 실기 60%의 비율로 반영하여 선발하며, 영화영상·연극·무용·농어촌(연극) 전형은 학생부 30%, 실기 70%의 비율로 반영하여 선발한다<표2>.

학생부100%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표2>.

<표2> 수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 분		학생부	면접	적성	실기	계
학생부 위주 (교과)	일반전형(적성)	60		40		100
	학생부100%전형	100				100
	미래핵심인재전형	60	40			100
	국가보훈대상자	60		40		100
	사회배려대상자					
	농어촌학생(정원외)	100				100
	특성화고출신자(정원외)					
실기 위주	체육실기우수자	40			60	100
	미술실기우수자	20			80	100
	음악실기우수자	20			80	100
	영화영상실기우수자	30			70	100
	연극실기우수자	30			70	100
	무용실기우수자	30			70	100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40			60	100
	농어촌학생(연극)(정원외)	30			70	100
면접	재외국민(정원외)		100			100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정시모집에서의 성적 반영비율은 모집단위별로 차이가 있다.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예체능계열 중 체육(스포츠과학부)는 실기 60%와 수능 4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영화영상 및 연극은 실기 70%와 수능 30%, 미술과 무용 및 음악은 실기 80%와 수능 2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표3>.

수능 반영영역의 경우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은 국어/영어/수학/탐구 4개 영역, 예체능계열은 국어/영어/탐구 3개 영역의 백분위(영어영역은 등급) 점수를 반영한다. 탐구영역은 계열과 관계없이 사탐/과탐/직탐에서 이수한 상위 1개 과목의 성적만을 반영(간호학과 2과목)하고 수학 가형 선택 자는 10%의 가산점(백분위 점수)을 부여한다. 또한, 한국사영역의 경우 1~5등급까지는 5점, 6~9등급까지는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미 응시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표3> 정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유형	모 집 단 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실기	계
나군	수능위주	인문/자연계열 전체 인문사회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ICT융합대학 건강과학대학(스포츠과학부 제외), 자유전공학부	100(100)	-	100
		예체능계열 문화예술학부(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100(100)	-	100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100(100)		100(100)
		특성화고출신자전형(정원외)	100(100)		100(100)
	실기위주	스포츠과학부	40(40)	60(60)	100
		미술대학	20(20)	80(80)	100
		문화예술학부(연극)	30(30)	70(70)	100
		문화예술학부(무용)	20(20)	80(80)	100
		농어촌학생전형(연극)(정원외)	30(30)	70(70)	100
		음악대학	20(20)	80(80)	100
다군		문화예술학부(영화영상)	30(30)	70(70)	100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추진내용

#### 3.1 선행학습 영향평가 추진일정

2020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영향평가 계획, 영향평가 준비,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영향평가 보고의 4단계로 추진하였다. 각 단계별 세부일정 및 추진내용은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4> 선행학습 영향평가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일정
영향평가 계획단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2019. 9
	적성고사 문제출제위원 회의 및 방향제시	2019. 10
	자체영향평가위원회 및 외부평가위원 위촉	2019. 10
영향평가 준비단계	[자체분석] 적성고사 출제교수 자체분석 진행	2019. 10
	[외부평가] 영역별 문항검토 및 평가 실시	2019. 11. 2
	영역별 외부평가내역 통계 및 분석	2019. 11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단계	자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회의 및 초안 작성	2020. 1
	영역별 초안 취합 및 보완	2020. 1
	2차 내용 검토 및 보완	2020. 2
영향평가 보고	자체영향평가 보고서 최종확정(자체영향평가위원회)	2020. 2
	최종보고(교육부보고 및 입학홈페이지 공고)	2020. 3

### 3.2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

<표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은 적성고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입학전형이다.

적성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하여 현직 고등학교 교사 20명(국어 및 수학 영역 각 10명)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이들 외부평가위원에게 본교에서 시행한 적성고사의 각 영역별 전체 문항의 분석을 의뢰하였다. 또한,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다음 장에 설명되어 있다.

면접고사는 고등학교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특별히 정해진 답이 없으며, 평소 본인의 생각을 면접위원에게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인성면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하기 보다는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자체 분석을 진행하였다.

### 3.3 선행학습 영향평가 평가위원 구성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하여 현직 고등학교 교사 20명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국어영역의 경우 일반고 9명, 자사고/자율고 1명 등 총 10명의 국어과 현직교사를 위촉하였으며, 수학영역은 일반고 9명, 자사고/자율고 1명 등 총 10명의 수학과 현직교사를 위촉하여 본교에서 시행한 적성고사의 각 영역별 전체 문항의 분석과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4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해 본교에서 시행한 면접고사의 분석은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였다. 위원회 자체분석을 통해 본교의 면접고사가 교과지식이나 전공상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면접이므로 공교육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음을 평가하였다.

##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 1. 적성고사

본교에서 시행하는 2020학년도 적성고사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추가의 학습 부담 없이 치를 수 있는 시험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본교의 적성고사 출제 및 기본계획의 수립은 위촉된 출제위원이 수행하고 전반적인 절차는 입학처에서 주관한다.

입학처는 수시모집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인 10월초에 시행된다는 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별도의 부담 없이 본교 적성고사를 치를 수 있게 한다는 적성고사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이 후 4~7월 중에 70여개의 고등학교에서 모의 적성고사를 시행하고, 출제위원 위촉 후 실시하는 출제위원 연수에서 모의고사 결과와 함께 전년도 합격자들의 성적분포도를 출제위원들에게 제공하여 본교 적성고사에 지원하는 대략적인 수준과 함께 출제 문항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출제위원 연수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학년도에 준한 기본적인 출제양식에 대한 해설
-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적성고사 문제 및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정답률과 오답률
-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적성고사를 치른 4개 세트의 합격자 평균 점수
-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적성고사의 각 전형, 각 학과별 분포도

본교 적성고사의 출제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출제위원의 위촉,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고, 출제위원은 출제를 위하여 각 영역별로 2차례의 준비모임과 사전회의를 거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교에서는 국어 영역과 관련 있는 해당 전공 교수 5명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학(문학교육) 전공자 1인, 국어학(문법) 전공자 1인, 인문학(러시아 문학) 전공자 1인, 사회과학(경영학) 전공자 1인, 교육평가 전공자 1인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한편, 수학영역은 수학 나형의 범위인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를 적성고사의 범위로 고려하여 수학 전공자 4인, 통계 전공자 1인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본교에서는 출제위원들로 하여금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부터 실시할 것을 의뢰하여, 해당 출제위원들은 당해 연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해하면서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영역별 출제위원 5명은 2019년 1학기 말에 개최된 2차례의 준비 모임에서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자신이 출제해야 할 영역의 범위를 확정지었다. 특히 현재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EBS 교재에서 70% 이상 연계되어서 출제됨에 유의하였다.



국어영역 사전회의에서는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EBS 연계교재의 구성 및 특성, 문항의 성격 등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등 해당 출제위원이 담당해야 할 각 영역 출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회의 후에 본교 적성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출제의 연속성 및 고교 교육과정 준수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문항수와 비율, 문항 성격 등을 결정하였다.

그 후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및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교과서 및 EBS 연계 교재 등을 확보하고 각자 담당할 출제 영역을 분담하였으며, 참고한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 2020학년도 EBS 수능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

수학영역 사전회의에서는 교과과정 영역별로 교과서 및 EBS 연계정도를 분석하여 출제위원이 담당해야 할 각 영역 출제에 대한 토의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회의 후에 본교 적성고사 수학 영역에서는 출제의 연속성 및 고교 교육과정 준수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문항수와 비율, 문항 성격 등을 결정하였다.

그 후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및 EBS 연계 교재 등을 확보하고 각자 담당할 출제 영역을 분담하였으며, 참고한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수학 I 은 EBS 수능완성과 수능특강 교재에 직접 포함되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를 토대로 출제하였다.

-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 고등학교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 2020학년도 EBS 수능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수능 완성 수학 나형’ 등.

국어영역과 수학영역 모두 출제교재로 EBS 연계교재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낯익은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험준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입학처의 위촉을 받은 출제위원들은 본교가 고시한 적성고사 시행방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교의 대내외적 위상과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학년도 적성고사 출제 방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웠다. 적성고사 시험영역과 배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표5>.

**<표5> 문항 수와 배점기준**

구 분	내 역	
시험영역	문항수	국어, 수학 각 30문항
배점기준	인문계열	(국어 30문항 x 4점) + (수학 30문항 x 3점) + 기본 190점 = 400점
	자연계열	(국어 30문항 x 3점) + (수학 30문항 x 4점) + 기본 190점 = 400점

인문계열은 국어에 가중치를 주고, 자연계열은 수학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이다. 출제위원들에게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70% 이상 연계되어 있는 EBS 교재 및 검인정 교과서를 구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탐독할 것을 요청하였다.

## 1.1 국어영역

### 1.1.1 출제방향

2020학년도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제 출제 방향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의 취지에 부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하여, 전년도인 2019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육부의 주요 요구 사항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적성고사 출제 연수 및 회의를 거쳐 출제 방향(출제 범위 및 난이도 등)을 선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 출제 방향은 아래와 같다.

2020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의 출제 방향은 전년도의 본교 적성고사 전형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본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해 연도 국어영역 적성고사는 전반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전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2020학년도에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국어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내용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본교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제 출제 시 학생 및 교사 등의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요인 억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국어영역에 관련된 교·내외 전문가들(예: 본교 국문학과 교수, 현직 고교 교사)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출제위원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본교 2019학년도 적성고사 문제 특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몇 차례의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출제 방향을 확정하였다.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 출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교 적성고사 국어영역은 전년도 적성고사 출제 방향과 동일하게 1세트 당 4지선다 30문항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는 5지선다형 시험인 수학능력시험보다 체감 난이도를 한 단계 낮추어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둘째,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및 EBS 연계 교재(예: 수능특강, 수능완성)를 바탕으로 출제하도록 하였다. 셋째, 적성고사 응시계열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문사회계열은 국어영역에서 가중치를 두도록 하였고 자연계열은 수학영역에 가중치를 두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성고사 적용 대상이 일반전형(적성)/국가보훈대상자/사회배려대상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상, 중, 하 각각 2세트씩 구성하도록 하여 문제 난이도가 균형 있게 출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1.2. 출제 경향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상의 필수요소들을 포함하였으며, 전체 문항이 2009년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수하였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의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기초가 되는 어법, 독서, 문학영역 등 3대 핵심 영역의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국어영역 적성고사를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 영역별 문항 출제경향은 다음과 같다. 문법, 화법, 작문의 세부영역을 포함한 어법영역에서는 2019학년도 적성고사문제 출제경향과 동일하게 10문항을 출제하였다. 인문·예술, 과학·기술, 사회 등의 세부영역을 포함한 독서영역에서는 11문항-14문항을 출제하였으며(세트별 문항 수 분포가 다소 상이), 고전 및 현대의 산문과 운문을 포함한 문학영역에서는 6문항-9문항이 출제되어 총 30문항을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모두 EBS 교재를 활용하여 고교수준의 적정난이도를 유지하였다.

**<표6> 국어영역 적성고사 출제영역별 문항 수**

	어법	독서			문학		합계
		인문·예술	과학·기술	사회	산문	운문	
2020학년도	10	2-3	3-8	3	3-6	3-6	30
2019학년도	10	3	3	3	5-6	5-6	30

본교에서는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의 영역별 출제경향 즉, 화법·작문·문법영역, 독서영역, 문학영역을 유사 비율로 고르게 출제하는 경향을 준수하였다. 또한 2020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에서는 2019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출제경향에 반영하였다. 첫째, 문학영역에서 고전 및 현대 문학의 출제비중이 편향되지 않도록 산문과 운문 별 고전·현대 문학 비중을 고르게 분포하였다. 둘째, 어법영역에 있어서도 2019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준으로 화법, 작문, 문법영역을 세분화하였으며, 해당 세부영역에서 동일 비중으로 골고루 문제를 출제하였다. 셋째, 독서영역에서는 2019학년도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한 주제를 지문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문사회계열 및 자연계열 응시 수험생들의 융·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학년도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 출제경향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서적 등 다양한 비문학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독서영역의 비중을 조금 더 강

화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인문·예술, 과학·기술,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비문학적 자료들을 읽고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습득이 필요한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지문 및 문항 비중을 2019년 적성고사에 비해 상향 조정하여 출제하였다. 이는 융·복합형 지문을 늘리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본교 적성고사에서 활용한 모든 지문들은 EBS 교재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부담도 줄이고자 하였다.

### 1.1.3. 문항별 분석

2020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를 어법·독서·문학영역의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어법영역에서는 담화의 표현 및 담화의 구성, 음운의 변동, 조건에 맞는 글쓰기 방식과 같은 작문활동 수행, 높임 표현과 같은 문법표지, 직간접인용 구별 등의 문법, 부사어 기능용례, 문장성분 분석, 품사분류 등을 포함한 화법과 작문, 문법의 세부 영역 문항들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 모든 문항들은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하여 출제되었으며,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독서영역에서는 인문·예술, 과학·기술,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지문들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글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 이해 능력 파악, 지문에서 제시하는 세부 정보 및 의미 파악, 문제 해결적 사고 능력 파악, 어휘력 및 문맥에 대한 이해 능력 파악,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 적용 능력 파악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모두 EBS 연계 지문을 바탕으로 출제되었으며,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문학영역에서는 고전과 현대 문학의 산문과 운문 작품들을 지문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지문을 통해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능력 파악, 시의 형식적 특성 파악,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 파악, 작품 속 핵심 소재에 대한 이해 능력 및 감상 능력 파악, 작품 서술 상 특징에 대한 이해 능력 파악, 작품의 상황적 맥락 이해,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속 구절의 문맥적 의미 감상 능력 파악, 작품 표현상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파악, 작품 속 화자의 태도에 대한 이해 능력 파악을 위한 문항들을 출제 하였다. 해당 지문 및 문항들은 모두 EBS와 연계해 출제 되었다.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에서는 총 30문항을 출제하였으며, 모든 문항들은 2009년 국어과 교육과정 중 국어, 국어 I, 국어 II,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과목 관련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학생들이 평균 30초 내에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하였으며, EBS 수능특강(화법·작문·문법, 국어, 독서, 문학), EBS 수능완성 등 EBS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본교에서는 10인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일반고 교사 9인 및 자사고/자율고 교사 1인)을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본교에서 5년 이상의 고등학교 근무 경력을 지닌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한 이유는 이들이 고교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부 등의 교육 수요 그리고, 관련 요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평가위원들은 본교 2020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 유형, 난이도 등이 고등 교과과정 및 EBS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항들에 대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는 문항으로 설계"하였으며, "각 문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 높은 문제들로 구성"함과 동시에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외부평가위원들의 의견은 본교 ‘적성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본교 적성고사 출제유형 및 출제영역, 난이도 등을 묻는 설문에 대해 외부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표7>에 제시된 국어영역 적성고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는 수능유형으로 출제되었으며(매우 그렇다 50%, 그렇다 50%),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하여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고 평가되었다(매우 그렇다 70%, 그렇다 30%). 이로 인해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고(매우 그렇다 70%, 그렇다 30%), 학생들은 별도의 적성고사 대비를 하기보다 수능대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매우 그렇다 80%, 그렇다 20%).

난이도의 경우 수능 국어영역의 70-75%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고(매우 그렇다 60%, 그렇다 40%), 고교에서 수능준비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매우 그렇다 100%). 즉 출제 문항이 고교검인정 교과서 및 교과과정을 응용한 EBS 연계문제에서 60-70% 정도 출제되었고(매우 그렇다 90%, 그렇다 10%), 평가 방법이 수능과 유사하여 학생들이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였다(매우 그렇다 100%). 출제 영역 및 문항 수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매우 그렇다 70%, 그렇다 30%)

**<표7> 국어영역 적성고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원대학교 적성고사는 교과적성 유형(수능유형)이다.	5 (50%)	5 (50%)			
고등학교 교과과정 반영 및 수능과 유사한 출제유형이다.	7 (70%)	3 (30%)			
수능의 국어영역 70-75%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6 (60%)	4 (40%)			

교과적성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7 (70%)	3 (30%)			
학생들의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대비는 별도의 준비보다는 수능대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8 (80%)	2 (20%)			
출제 문항이 고교검인정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으며, 교과과정을 응용한 EBS 연계문제에서 국어는 60-70% 정도 출제되었다.	9 (90%)	1 (10%)			
고교에서 수능준비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10 (100%)				
출제영역은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 (100%)				
평가방법이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 (100%)				
출제영역 및 문항 수는 적절한가?	7 (70%)	3 (30%)			

특히 2020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항의 경우 2019학년도 문항에 비해 교과적성 유형을 보다 잘 반영하여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2019학년도 대비 긍정답변 20%p. 증가). 난이도 측면에서도 2019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항 난이도에 비해 수능 수준의 난이도를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2019학년도 대비 긍정답변 10%p. 증가), 출제 범위에 있어서도 2019학년도에 비해 고교검인정 교과서나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019학년도 대비 긍정답변 10%p. 증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비교는 <표8>와 같다.

**<표8> 국어영역 적성고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비교**

설문내용	2020년 긍정답변	2019년 긍정답변	긍정답변 증감
수원대학교 적성고사는 교과적성 유형(수능유형)이다.	100%	80%	△20%
고등학교 교과과정 반영 및 수능과 유사한 출제유형이다.	100%	100%	0%
수능의 국어영역 70-75%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100%	90%	△10%
교과적성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100%	100%	0%
학생들의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대비는 별도의 준비보다는 수능대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100%	100%	0%
출제 문항이 고교검인정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으며, 교과과정을 응용한 EBS 연계문제에서 국어는 60-70% 정도 출제되었다.	100%	90%	△10%

고교에서 수능준비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100%	100%	0%
출제영역은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0%	100%	0%
평가방법이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0%	100%	0%
출제영역 및 문항 수는 적절한가?	100%	100%	0%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 해 보았을 때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본교 적성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관련성 및 선행학습 유발 정도에 대해 외부평가위원들은 <표9>와 같이 평가하였다.

**<표9> 고교 교육과정 관련성 및 선행학습 유발정도(국어영역)**

설문내용	있다			없다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없다	전혀 없다
적성고사에 출제된 문항 중 고교과정 만으로 풀 수 없는 문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10 (100%)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제와 고교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0 (100%)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제의 선행학습 유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3 (30%)	7 (70%)

모든 외부평가위원들은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가 고교과정 만으로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외부평가위원 전원이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제와 고교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적성고사 문제의 선행학습 유발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70%, ‘없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외부평가위원들은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제가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의 출제방향 및 출제경향은 「공교육 정상화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교 적성고사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 유형 및 출제 범위, 난이도 등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1.2 수학영역

### 1.2.1 출제방향

수학영역 적성고사 출제방향은 2014년 3월 11일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을 토대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육부의 취지와 관련자(교육부,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 등)들의 제언을 토대로 정하였다. 본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 적성고사를 실시한다는 시행계획을 가지고 고교 교육과정의 분석, 출제자 사전교육을 포함한 사전 준비회의를 거쳐 출제방향을 정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적성고사 출제시 적용되어야 하는 교과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임을 확인하였고 출제를 위한 자료도 이에 맞추어 준비하였다. 수학영역 출제위원 연수 및 회의에서 출제위원에게 기본적인 출제양식, 출제의 기본계획,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적성고사를 치른 유형별 합격자의 평균점수, 학과별 합격자의 평균점수, 적성고사의 문항별 정답률과 오답률 등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출제자들이 사전에 평균적인 문제 난이도를 가늠하게 하고 출제범위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적성고사 출제 기본계획에는 적성고사의 시기, 출제의 목적, 영역별 문제 수, EBS관련 문제출제 비율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적성고사 수학영역 출제의 목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수학 개념의 이해도와 계산능력 등의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되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였다. 적성고사는 수능시험 전에 1회 치르고, 출제 1세트 당 언어영역 30문제, 수학영역 30문제, 총 60문제를 60분 동안 치르며, 각 문제는 객관식의 4지선다로 정하였다. 출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였는데, 예비세트를 포함하여 총 6세트를 출제하고 이 중 2세트는 난이도 상, 2세트는 중, 2세트는 하로 구분하였다. 또한 2020학년도 적성고사의 EBS교재 연계비율은 2019학년도 적성고사수준(70~8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성고사는 계열구분 없이 동일범위에서 출제하되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과목별 가중치를 달리하였다.

### 1.2.2 출제유형(경향)

본교의 수학영역 적성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수학개념의 이해도와 계산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적성고사 수학영역의 범위는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의 4개 영역을 <표10>과 같이 다시 14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었다. 자연계열에서만 배우는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내용은 출제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수능 수학 나형 교과목인 수학 II와 미적분 I, 확률과 통계를 토대로 하고 기본이 되는 수학 I도 포함하여 출제하였다. 수학 I에 포함되는 다항



식,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른 문제의 풀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출제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부분만을 위한 별도의 문제로 출제하지는 아니하였다. 수학 영역의 세부 출제비중을 살펴보면 수학 I 7%, 수학 II 27%, 미적분 I 47%, 확률과 통계 20%로 2019학년도에 비하여 수학 I의 비중을 줄이고 미적분 I의 비중을 늘렸다. 이는 최근 융합 학문의 시도에 따라 인문계열에서도 수리 능력을 요구함에 따라 고1 내용인 수학 I의 비중을 줄이고, 미적분 I의 비율을 늘려 수리능력이 뒷받침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10> 수학영역 적성고사 출제영역별 문항 수**

구분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합계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문항수	0	0	2	2	2	2	2	3	3	4	4	2	2	2	30

출제에 참고한 교재는 EBS 수능특강 수학 II&미적분 I, EBS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EBS 수능완성 수학 나형이었고, 수학 I은 EBS 수능완성과 수능특강 교재에 직접 포함되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를 토대로 출제하였다. 출제교재로 EBS 연계교재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낯익은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험준비를 위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 1.2.3 문항별 분석

수학 I은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세 영역으로 그리고 수학 II는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미적분 I은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의 네 영역으로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출제영역별 고교 교과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외부평가위원들의 문항별 평가를 살펴본 결과 각 문항이 이 목표에 부합되었다고 판단된다.

수학 I의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의 영역은 별도로 평가한 문항은 없었지만 다른 영역의 평가에 자연스럽게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도형의 방정식 영역에서는 원방정식, 점의 대칭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한 최소값 계산 등을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기하학적 성질을 응용할 수 있는지를 출제의도로 하였고 외부 평가위원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학Ⅱ의 집합과 명제영역은 집합의 개념, 집합의 연산과 포함 관계, 조건 명제와 진리집합, 집합 기호, 집합의 연산 및 원소의 개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대우 명제의 참·거짓 판별능력을 평가하였다. 함수영역은 함수의 정의, 일대일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역함수의 정의와 역함수 존재조건,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한 문제해결력을 측정하였다. 수열영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 수열의 규칙성, 수열의 일반항 유도능력 등을 평가하였다. 지수와 로그영역은 거듭제곱근의 의미, 지수법칙, 로그의 성질, 로그의 정의와 활용능력 등을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집합과 명제에 대한 문제는 집합과 원소에 대하여 알고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를 출제의도로 하였고 외부 평가위원은 집합의 연산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로 교육과정에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적분 I의 수열의 극한영역에서는 등비급수의 성질, 급수의 수렴, 등비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과 급수 사이의 관계, 수열의 극한 등을 평가하였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영역은 함수의 극한과 성질의 활용,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 함수의 합성,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능력에 대한 계산력 등을 평가하였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영역은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 미분계수의 이해 등을 평가하였다. 다항함수의 적분법 영역은 정적분의 정의, 미분, 적분의 물리적 의미(속도, 가속도, 변위), 부정적분의 의미 등을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는 수열의 극한의 계산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출제의도로 하였고 외부 평가위원은 유리화를 활용한 간단한 극한계산 문제로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확률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영역은 순열의 의미와 수, 중복조합의 의미 및 경우의 수의 계산능력 등을 평가하였다. 확률영역에서는 확률의 의미, 확률의 덧셈정리, 조건부확률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영역은 정규분포, 표본평균의 분포, 표본비율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순열과 조합에 대한 문제는 순열과 원순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출제의도로 하였고 외부 평가위원은 원순열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 내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학영역 적성고사에 대한 외부평가위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표11>에 제시하였다. 적성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다양한 문항으로 설문되었고, 부정적인 대답은 없었지만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나타낸 문항은 「수원대학교 적성고사는 교과적성유형(수능유형)이다.」 「수능의 50~60%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이었다. 그 외의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이 100%로 나타났다.

**<표11> 수학적 영역 적성고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원대학교 적성고사는 교과적성유형(수능유형)이다.	7 (70%)	2 (20%)	1 (10%)		
고등학교 교과과정 반영 및 수능과 유사한 출제유형이다.	5 (50%)	5 (50%)			
수능의 50~60%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3 (30%)	5 (50%)	2 (20%)		
교과적성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6 (60%)	4 (40%)			
학생들이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대비는 별도의 준비보다는 수능대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8 (80%)	2 (20%)			
출제유형이 고교검인정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으며, 교과과정을 응용한 EBS 연계문제에서 70~80%정도 출제되었다.	7 (70%)	3 (30%)			
고교에서 수능준비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9 (90%)	1 (10%)			
출제영역은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70%)	3 (30%)			
평가방법이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6 (60%)	4 (40%)			
출제영역 및 문항 수는 적절한가?	4 (40%)	6 (60%)			

2020학년도 수학적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2019학년도 수학적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 문항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동일하거나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상향되었다<표12>. 이러한 결과는 적성고사 수학적 영역의 출제가 고교 교육과정범위 내에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제영역 및 문항 수는 적절한가?」는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2019학년도에 배하여 20%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원대학교 적성고사는 교과적성유형(수능유형)이다.」는 긍정적 답변이 2019학년도 설문 응답시 100%에서 90%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적성고사가 수능보다 쉽게 출제됨에 따라 ‘적성고사가 수능유형이냐’는데 긍정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향후 출제문제들에 대한 난이도 검토 및 조정에 좀 더 세심한 고려를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긍정적인 답변 중 ‘매우그렇다’와 ‘그렇다’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12>의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의 문항에서 2019학년도에 비하여 ‘매우그렇다’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표12> 수학생역 적성고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비교**

설문내용	2020 긍정답변	2019 긍정답변	긍정답변 증감
수원대학교 적성고사는 교과적성유형(수능유형)이다.	90%	100%	▽10%
고등학교 교과과정 반영 및 수능과 유사한 출제 유형이다.	100%	100%	0%
수능의 50~60%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80%	80%	0%
교과적성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100%	100%	0%
학생들이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대비는 별도의 준비보다는 수능대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100%	90%	△10%
출제유형이 고교검인정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으며, 교과과정을 응용한 EBS 연계문제에서 70~80%정도 출제되었다.	100%	100%	0%
고교에서 수능준비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100%	100%	0%
출제영역은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0%	100%	0%
평가방법이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0%	90%	△10%
출제영역 및 문항 수는 적절한가?	100%	80%	△20%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과 선행학습 유발성은 <표13>과 같이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본교 수학생역 적성고사가 고교 교과과정만으로 풀 수 없는 문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원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본교 수학생역 적성고사와 고교 교과과정과의 관련성 정도에 있어서 ‘매우 많다’, ‘많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0%, 30%로 전원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선행학습 유발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0%, 3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교 수학생역 적성고사 문제는 공교육을 성실히 받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고교 교과과정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표13〉 고교 교육과정 관련성 및 선행학습 유발 정도(수학영역)

설문내용	있다		없다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없다	전혀 없다
적성고사에 출제된 문항 중 고교과정 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10 (100%)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항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7 (70%)	3 (30%)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항의 선행 학습 유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3 (30%)	7 (70%)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본교의 2020학년도 수학영역 적성고사는 출제영역 및 평가방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본교의 2020학년도 수학영역 적성고사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았고 공교육을 성실히 받은 학생이라면 사교육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

## 2. 면접고사

### 2.1 출제방향 및 유형

2020학년도 면접고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성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지원자들의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자 자신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교가 실시하는 구술면접은 고등학교 교과지식이나 전공 상식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써 특별히 정해진 답이 없으며, 본교 교수 2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평가로 지식 평가가 아닌 인성면접이라 할 수 있다.

면접고사는 크게 인성(자기소개), 학업계획 및 포부, 창의력 및 사고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인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대학에 진학하여 본인이 지원한 전공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업계획 및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직장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합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본인의 능력이나 성향이 지원한 학과에 적합하고 이 분야에 어느 정도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면접방식은 2인의 교수가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룹면접 형식으로 1분간의 자기

소개로 시작하여 각 분야에 대해 면접위원이 지원자들에게 질문을 하며 지원자들은 이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면접위원 앞에서 구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위원은 출제된 면접 문항들 중에서 평가 항목별로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에 대해 3명의 수험생들이 모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진행과정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질문에 답하는 순서에 있어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진행하였다. 각 분야별 대표적 예시 질문문항은 <표14>에 제시되어 있다.

면접문항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으며 면접시작과 동시에 고사본부에서 면접문항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하여 실시하였다. 원활한 면접고사 진행을 위하여 본교 입학처에서 면접위원과 진행요원을 대상으로 면접과 채점요령 그리고 면접진행 보조 활동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2.2 문항별 분석

본교의 면접고사는 지식평가가 아닌 인성면접으로 본교가 2020학년도 입시에서 사용한 면접문항을 각 항목별로 제시함으로써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한다<표14>.

**<표14>면접고사 예시문항**

평가항목	면접문항 예시
인성(자기소개)	1분간 자유롭게 자기소개
학업계획 및 포부	* 대학생할 동안 꼭 해보고 싶은 일(활동)은? * 대학생할과 고교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창의력 및 사고력	*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지원자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공적합성	* 본인의 장·단점을 지원학과와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 만약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그 이유는?

### Ⅲ.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종합논의

#### 1. 적성고사

##### 1.1 국어영역

본교에서는 EBS 교재를 적절히 연계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제를 출제하였다.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본교 적성고사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평가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 높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본교 2020학년도 적성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을 평가한 모든 외부위원들이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제는 고교과정만으로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본교 적성고사 문제와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제의 선행학습 유발 정도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70%, ‘없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하여, 본교 적성고사는 선행학습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국어영역 적성고사 출제에 있어서 어법·독서·문학영역의 출제 비중 및 난이도 등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조정하였다. 어법영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문법, 화법, 작문 평가 요소 중 대학교육에도 연계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비문학 지문을 포함하는 독서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문들을 포함하되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EBS 연계 지문을 적극 활용하였다. 문학영역에서도 고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에 포함된 고전과 현대문학 비중을 골고루 포함하여 운문과 산문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하였다. 즉 2020년 본교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 이해능력, 논리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현실 적합한 실증적 문제들을 출제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출제 방침은 2021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 출제 시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학년도 적성고사와 마찬가지로 2021학년도에도 국어 검정교과서 및 EBS 교재 등을 바탕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여 적성고사를 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측면도 향후 국어영역 적성고사 입학전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2021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제 출제 시에는 EBS 교재뿐만 아니라 고교 국어 검정교과서 활용도 기존과 같이 강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학년도 국어영역 적성고사 문제를 EBS 교재 및 고교 국어 검정교과서와 연계하여 출제한 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학생 사고의 다양화 등을 고려해 고전 혹은 (근)현대

문학 및 비문학 지문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의 영역 특성을 감안하여 독서영역의 지문 및 세부영역 문항 비중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계열 적성고사 문제에 과학·기술영역 지문을 다수 포함시키면 학생들이 지문을 읽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계열별로 독서영역 지문 및 세부영역 문항 비중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독서영역의 비문학 세부영역을 더욱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2 수학적영역

본교는 2020학년도 적성고사 수학적영역 입학전형에서 2019학년도 적성고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EBS 교재와의 연계비율을 유지하기로 하고 출제를 위한 연수 및 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취지를 설명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입학전형 후 실시된 외부평가위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교과정만으로 풀 수 없는 문항은 없다는 점에 100% 동의하는 응답을 제시하였고,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100%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0학년도 적성고사 수학적영역 입학전형은 본교를 지원한 수험생으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할 여지가 없게 출제 및 시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교의 2021학년도 적성고사 수학적영역 출제는 기본적으로 2020학년도와 같이 교과서와 EBS 수능교재 등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되, 아래와 같은 점은 향후 적성고사 수학적영역 입학전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0학년도 적성고사 수학적영역은 교과서 및 EBS 교재의 출제비율을 2019학년도와 유사하게 유지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부합하고자 하는 본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수학적영역 적성고사에 대한 외부평가위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중 부정적인 대답은 없었다. 또한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나타낸 문항이 2019학년도 5개 문항에서 2개 문항으로 대폭 감소하여 외부평가위원들이 전년대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보통이다’의 응답이 포함된 두 문항(「수원대학교 적성고사는 교과적성유형(수능유형)이다.」 「수능의 50~60%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에 대해서는 향후 설문과정에서 본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난이도 수준과 외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난이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교에 지원하는 지원자 및 수험생이 본교의 적성고사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홍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시모집 적성고사 입시요강 등에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등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적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2. 면접고사

본교의 면접고사는 인성면접으로 지원자들이 면접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지원자들의 사고와 태도, 전공적합성, 향후 학업계획 및 미래에 대한 포부 등을 확인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2020학년도 면접고사는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에 맞도록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교에서 실시한 2020학년도 면접고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인 개별면접에서 그룹면접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고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면접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면접위원들과 진행요원의 사전 교육을 강화하였다. 향후에도 면접고사의 질적 향상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면접문항의 지속적 개발과 운영상의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대입전형 반영계획 및 개선방향

본교가 자체 실시한 2020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따르면 본교가 실시한 적성고사와 면접고사는 전체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선행학습 억제를 위한 방향으로 잘 실시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수원대학교는 2021학년도 입시전형에서도 전년도 전형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 1]

## 2020 적성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지 통계자료 (국어, 수학 영역)

### I. 응답자 정보

#### 1. 응답자 소속학교 유형

구분	①일반고	②특목고	③자사고/자율고	④종합고	⑤특성화고	⑥기타
국어	9		1			
수학	9		1			

#### 2. 응답자 교육경력

구분	①5년 미만	②5년~10년 미만	③10~15년 미만	④15~20년 미만	⑤20년 이상
국어		1	3	1	5
수학		2		2	6

#### 3. 응답자 소속교 학생 수

구분	①인문계열				②자연계열			
	150미만	150~200 미만	200~300 미만	300이상	150미만	150~200 미만	200~300 미만	300이상
국어	2	5	3		3	4	2	1
수학	3	4	3		4	3	3	

### II. 적성고사 평가

#### 1. 수원대학교 적성고사는 교과적성 유형(수능유형)이다.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5	5			
수학	7	2	1		

2. 고등학교 교과과정 반영 및 수능과 유사한 출제유형이다.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7	3			
수학	8	2			

3. 수능의 국어영역 70~75%, 수학영역 50~60%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6	4			
수학	5	5			

4. 교과적성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7	3			
수학	6	4			

5. 학생들의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대비는 별도의 준비보다는 수능대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8	2			
수학	8	2			

6. 출제 문항이 고교검인정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으며, 교과과정을 응용한 EBS 연계문제에서 국어는 60~70%, 수학은 70~80%정도 출제되었다.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9	1			
수학	7	3			

7. 고교에서 수능준비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10				
수학	9	1			

8. 출제영역은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10				
수학	7	3			

9. 평가방법이 수능과 유사하여 별도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10				
수학	6	4			

10. 출제영역 및 문항 수는 적절한가?

구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국어	7	3			
수학	4	6			

11.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제는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고등학교 내신등급(관련과목)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분	1등급	등급≤2	등급≤3	등급≤4	등급≤5	등급≤6	등급≤7	등급≤8	등급≤9
국어		2	2	4	2				
수학				8	2				

12.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제는 수능등급(관련과목)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분	1등급	등급≤2	등급≤3	등급≤4	등급≤5	등급≤6	등급≤7	등급≤8	등급≤9
국어			4	5		1			
수학			1	8	1				

13. 적성고사에 출제된 문항 중 고교과정 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분	①없다	②있다
국어	10	
수학	10	

13-1. 위 13번 문항에서 ②번을 선택하셨다면, 선택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제와 고교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매우 많다	②많다	③보통이다	④없다	⑤전혀 없다
국어	10				
수학	7	3			

15.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문제의 선행학습 유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전혀 없다	②없다	③보통이다	④많다	⑤매우 많다
국어	7	3			
수학	7	3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 제 정 : 2014. 12. 15.

□ 개 정 : 2018. 04. 0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위원회

**제3조(설치)** 제2조에 따른 수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내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 유발방지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 ① 위원회는 교무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 ② 내부위원은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업무는 교무입학처에서 관장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용역업체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 **제10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 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결과의 공시)** 자체영향평가의 결과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